

정부 및 공공기관 연설문 번역의 메타담화분석*

송 연 석
(한국외국어대)

1. 서론

통번역 관점에서 봤을 때 연설문은 독특한 유형의 텍스트다. 입말로 구현되는 텍스트이면서도 작성 단계에서는 엄연히 글말 텍스트라는 복합성을 지니기 때문이다(Gregory 1967, House 1997: 40에서 재인용). 특히 개회사, 기조연설, 축사 같은 연설문은 입말이면서도 고급 어휘가 많고 격식적인 글말로서의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어 더욱 까다로운 텍스트 유형이다. 통번역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연설문 번역은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다. 통역수업에서는 연설문이 가장 많이 다루지는 텍스트 유형이기는 하나(최문선 2013: 259) 입말 중심 수업인 만큼 글쓰기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번역수업에서는 글말텍스트 유형이 이미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통역수업에서 충분히 연습했을 연설문을 굳이 자세히 다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학습자들은 연설문을 번역

하면서 상투적인 인사말과 맺음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글말텍스트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실성’과 ‘가독성’의 줄다리기에 매몰되기 쉽다. 그러나 연설문은 내용에 아무리 정보가 많다 해도 ‘소구적 텍스트(operative text)’에 해당하기 때문에(Munday 2016: 116), ST의 명제적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연설의 목적과 의도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청중을 연설 속으로 끌어들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연설자와 청중 간 대인적(interpersonal) 관계 구축이 중요한 장르다. 특히 한영번역처럼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 학습자들은 명제적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원어민처럼 자연스런(idiomatic) 표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학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담화로서 화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번역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필요에서 출발했으며, 한영번역 교수법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연설문과 번역된 연설문의 차이를 메타담화(metadiscourse)의 틀에서 비교·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담화란 독자/청자의 텍스트 처리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화자의 언어사용방식을 가리키는 말(Hyland 2018: xi)로, 주로 ESL/EFL 같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글쓰기교육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뤄져왔다(김철규 2009; Cheng & Steffensen 1996; Hyland 2001; Kim 1999; Kim & Suh 2014). 그러나 입말텍스트야말로 텍스트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텍스트인 만큼 토론이나 학회발표, 강연 같은 입말텍스트도 중요한 메타담화 연구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Aguilar 2008; Ilie 2003; Lim 2009). 연설문 또한 낭독용이나 게재용으로 번역하는 것이든, 사전에 입수한 연설문을 통역용으로 번역하는 것이든 결국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의 한 종류이므로 메타담화분석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통번역 관점에서 이뤄진 연설문 연구는 대체로 연설문의 특징적인 요소나 양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통역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어휘를 분석한 박세리(2015), 한일/일한 연설문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을 고찰한 박미정(2012),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사의 시체를 화행적 관점에서 분석한 방교영(2015), 일한통역의 ‘연설체’ 표현의 유형을 분류한 김한식(1997)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번역에 메타담화를 적용한 연구는 주주편

* 이 연구는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지를 분석한 김현아(2011, 2012), 신문사설번역에 적용한 신진원(2015)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연설문 통번역을 대상으로 한 메타담화분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국어 공식 연설문(ST)과 이를 영역한 번역문(TT), 영어권 유사 기관장의 연설문(CT: comparable text)을 대상으로 메타담화 분석을 실시해 TT와 CT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메타담화의 특징과 기능

‘메타담화’는 1959년 젤릭 해리스(Zellig Harris)가 만든 용어로,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간, 그리고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개념화한 것이다(Hyland 2005: 1-5). 하일랜드(Hyland, 2000: 109)에 따르면 메타담화는 “담화를 조직하기 위해, 혹은 담화 내용이나 독자/청자에 대한 저자/화자의 태도(stance)를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자원 으로 정의되며, 사회학자 배이트슨(Bateson 1972)과 고프만(Goffman 1974)의 틀(frame) 이론을 모태로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다(Hyland 2005: 8). 자칫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텍스트를 논리적이고 독자친화적인 텍스트로 바꿔주는 동시에 주어진 맥락에서 관련성을 높이고 텍스트 내용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독자와 관계를 구축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Hyland & Tse 2004: 156). 메타담화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으로, 밴더 코플(vande Kopple 1985)과 크리스모어(Crismore 1983/1989), 윌리엄스(Williams 1981) 등이 주축이 되었다. 밴더 코플은 “담화에 대한 담화(discourse about discourse) (1985: 83), “명제적 정보는 추가하지는 않으면서 저자의 존재를 알리는 언어 재료(Ibid.) 로 정의했고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40)도 “명제적 내용에는 아무 것도 더하지 않되 주어진 정보에 대한 청자/독자의 조직, 해석, 평가를 돕기 위한 언어 재료 로 비슷한 정의를 내렸다. 초기의 이 관

점들은 담화/텍스트 안에 주된 명제적 내용이 있고 메타담화는 이를 보조하는 부차적이고 분리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상정했는데 이후 하일랜드를 위시한 연구자들은 그 같은 위계적 구분을 거부하고 모두 대등한 메타담화 행위로 간주했다(Hyland and Tse 2004; Thompson 2001). 번역학에서도 명제적 측면과 대인적 측면을 분리해서 보려는 관점을 초기 기능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라이스(Reiss 1984/2000)가 텍스트 유형론에서 정보 전달 중심의 정보적 텍스트와 설득을 중시하는 소구적 텍스트로 기능을 분리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메타담화의 구성요소 중 일부는 기능적 유사성 때문에 ‘평가’(evaluation)’(Hunston & Thompson 2000), ‘태도(stance)’(Hyland 2001), ‘참여유도(engagement)’(Martin & White 2005) 같은 다른 언어학 용어와 개념적으로 중첩되기도 한다. 밴더 코플도 체계기능언어학의 할리데이(Halliday 1973)가 주창한 언어의 세 가지 메타기능(metafunctions)을 따라 메타담화를 설명하고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Vande Kopple 1985/2012). 그러나 할리데이 이론은 번역실습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그보다 단순하고 구분하기 쉬운 메타담화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의 정의와 관점을 따르든 한 가지 공통점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저자/화자가 잠재적 독자/청자의 생각이나 관심사, 니즈를 고려하게 마련이고 영어에서는 이런 대인적 측면이 메타담화를 통해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논문처럼 설득 효과가 요구되는 장르의 글쓰기 분야에서 메타담화가 널리 활용 및 연구되어 온 것도 그 때문이며 연설문 또한 소구적 텍스트인 만큼 메타담화가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메타담화표지 유형

메타담화표지 분류법이나 명칭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개념과 본질은 대동소이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하일랜드(2005)를 따른다. 메타담화는 크게 독자를 고려해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자원과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인터랙셔널(interactional) 자원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인터랙티브 자원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지들을 말한다. 접속사 같은 연결어(transitions)가 대표적이며, ‘First’, ‘Second’, ‘Finally’처럼 틀을 씌우듯

내용을 구체화 이해를 돕는 틀표지어(frame markers), ‘as mentioned before’처럼 같은 텍스트 내 정보를 가리키는 내조응표지어(endophoric markers), ‘according to~’처럼 텍스트 외부의 정보임을 알려주는 외조응표지어(evidentials), ‘in other words’, ‘for example’처럼 이해를 돕는 추가정보를 알리는 추가정보표지어(code glosses)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인터액셔널 자원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표지들로, ‘perhaps’, ‘might’처럼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확신이나 단정을 유보하고 다른 관점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헛지표현(hedges), 헛지와 반대로 ‘clearly’, ‘in fact’처럼 명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다른 관점은 차단하려는 강조어(boosters), ‘unfortunately’, ‘remarkable’처럼 명제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태도표지어(attitude markers), ‘I/my/me’와 독자를 배제한 ‘we/our/us’처럼 저자의 존재를 1인칭으로 드러내는 저자지칭어(self-mention), ‘you/your’나 독자를 포함하는 ‘we/our/us’, ‘consider’ 같은 명령문 등 명시적으로 독자를 지칭해 텍스트 내용에 끌어들이려는 참여유도표지어(engagement markers) 다섯 가지다(<표 1>).

<표 1> 메타담화표지의 종류

유형	종류	예
인터랙티브 자원 (interactive)	연결어	and, but, therefore, in addition, similarly, nevertheless
	틀표지어	first, then, next, finally, now, to summarize
	내조응표지어	as mentioned before, as noted above
	외조응표지어	according to X, Y states that
인터액셔널 자원 (interactional)	추가정보표지어	in other words, namely, for example, such as
	헛지표현	could, perhaps, might, possible, I think, I believe, about
	강조어	in fact, definitely, clearly
	태도표지어	unfortunately, hopefully, I agree, surprisingly
	저자지칭어	I, my, 독자를 배제하는 we
참여유도표지어	consider, note that, you can see that, 독자를 포함하는 we	

3. 연구방법

비교코퍼스는 미국 정부 기관 연설문으로 구축했다. 미국 정부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는 영어권 국가 중 최대교역국이자 안보동맹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교류가 많다는 점, 한국 전쟁 이래 한국 내 영어교육이 영국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 중심으로 이뤄져온 만큼 그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 한국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아래 18부처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즉 총 52개 중앙부처로 구성되어 있는데¹⁾ 비해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아래 15부처를 둔 기본 구조는 한국 정부와 비슷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국 사회 특성을 반영해 기능과 명칭, 수, 위계 등에서 차이를 보여 일대일 비교가 어렵다. 특히 기관장 연설문이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설문 메뉴 자체가 없거나 번역문 없이 한국어 연설문만 간헐적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코퍼스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소규모 코퍼스를 구성해 정성적 분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한국 정부 52개 각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장의 연설문 및 번역문 게재 여부를 확인해 한국어 연설문과 번역문을 추출²⁾한 뒤 해당 기관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기관을 찾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장의 연설문을 찾되 최대한 한국어 연설문과 비슷한 유형의 연설문을 추출했다. 한국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공개하는 연설문이 적어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검색해 한국어 연설문과 영어번역문을 추출하고 미국의 상응하는 기관을 찾아 비슷한 유형의 연설문으로 짝을 맞췄다. 규모가 작은 코퍼스이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해진 형식이 있으면서 연설 간 유사성이 크고, 특정 주제만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장의 개회사/환영사/축사/기조연설, 취임사, 신년사만으로 범주를 좁히고, 비교 코퍼스인 미국 기관장 연설도 가급적 번역된 연설문과 비슷한 유형, 연설자 직

1)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 연설문 및 번역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곳은 기획재정부였으나 한국어 연설의 영어번역문이 아니라 영어연설에 대한 국문번역문만을 게재하고 있어 제외했다.

위, 청중, 취지/주제,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했다. 예컨대 서울시장 신년사에 대해서는 뉴욕시장의 ‘State of City(신년시정연설)’를 상응하는 텍스트로 간주하고 코퍼스에 포함시켰다. 가급적 최근에 이뤄진 연설 위주로 선정하되 구글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자 연설 중에서 유사한 유형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 연설문(ST) 9개 (공백포함 총 33,014자), 영어로 번역된 연설문(TT) 9개 (총 14,022단어), 원어민이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한 연설문(CT) 9개(15,143단어)로 이뤄진 소규모 코퍼스를 구축했다. 각 연설문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에 사용한 영어연설문 비교코퍼스

	연설자/직위	유형	날짜/장소	단어수
1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조연설	2018.6.8./제주포럼	1,891
2	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	2019.1.2./서울 세종문화회관	2,109
3	송영무 국방부장관	취임사	2017.8.21./서울시 국방부청사	669
4	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사	2018.10.2./세종시 정부청사	1,648
5	이낙연 국무총리	기조연설	2018.6.8./제주포럼	2,385
6	이미경 KOICA이사장	축사	2018.9.13./서울ODA국제회의	1,018
7	조명관 통일부장관	오찬사	2018.11.20./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 회의2018	2,284
8	조현 외교2차관	기조연설	2017.10.27./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움	1,305
9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개회사	2017.11.15./서울 국제핀테크세미나	713
1	Joseph Simons 연방거래위원회장	개회사	2018.6.5./워싱턴D.C. 미 연방거래위(FTC)-법무부 워크숍	1,264
2	Bill de Blasio 뉴욕시장	신년사	2016.2.4./뉴욕시	6,619

3	Ashton Carter 국방부장관	취임사	2015.2.17./워싱턴 D.C.	686
4	Betsy DeVos 교육부장관	취임사	2017.2.8./워싱턴 D.C.	1,226
5	Mike Pence 부통령	축사	2018.11.14./싱가포르, 6차 미-아세안 정상회의	741
6	Mark Green 국제개발처장	축사	2017.12.1./뭄바이, 세계AIDS의 날 기념행사	1,110
7	John Kerry 국무장관	오찬사	2016.10.18./워싱턴D.C./이탈리아 총리 국빈오찬	1,341
8	Mike Pompeo 국무장관	축사	2018.11.27./ 워싱턴D.C. PERFAR ³⁾ 기술정상회의	1,034
9	Jerome Powell 연준의장	개회사	2018.12.6./워싱턴D.C./주거지원위원회 컨퍼런스	1,122

그 다음 10가지 메타담화표지에 각각 식별용 기호를 만들어 연설별로 코딩한 뒤 워드스미스툴(WordSmith Tools) 7.0을 이용해 결과를 산출하고 엑셀에 정리했다. 개별 메타담화표지와 더불어 전반적인 텍스트 구성의 특징도 개관하기 위해 어휘 다양성 지표인 표준화 타입-토큰 비율(STTR)⁴⁾, 평균 문장길이(문장 당 평균 단어 수), 어휘 난이도의 간접적인 측정기준인 어휘 길이(단어 당 문자 수)도 함께 기록해 비교했다. STTR은 1,000단어가 기본 설정값이지만 본 연구의 코퍼스는 규모가 작고 1,000단어 미만인 연설도 있어 비교의 타당성을 위해 우선은 각 연설별로 500단어를 기준으로 STTR을 구했다. 어휘 당 문자 수와 메타담화 표지도 연설마다 분량이 다른 만큼 정규화(normalization)⁵⁾해 산출했다. 코퍼스 크기가 TT는 평균 1,558단어, CT는 평균 1,682단어라 1,500단어를 기준

- 3)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 4) Standardized Type-Token Ratio: 텍스트 길이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TTR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전체 텍스트를 일정 단위로 쪼개어 각각의 TTR을 구한 뒤 그 값들의 평균을 산출함으로써 텍스트 간에 길이가 달라도 어휘 다양성을 비교적 타당하게 볼 수 있다(고광운·이영희 2016).
- 5) 규모가 서로 다른 코퍼스(텍스트)간의 대등한 비교를 위해 공통 기준을 정해 상대빈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처음 구한 빈도를 원래 코퍼스 크기로 나눈 값을 정규화 기준으로 정한 크기에 곱해서 구한다(Biber et al. 1998, 최희경 2015에서 재인용).

으로 설정해 각 연설마다 정규화 과정을 반복해 결과값을 엑셀에 기록했다. 각 연설별 정규화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TT, CT별 평균을 구해 비교했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텍스트 구성

분석 결과, 어휘 다양성을 나타내는 STTR은 TT가 49.7, CT가 49로 TT가 오히려 약간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근소했다. 1,000단어 미만의 연설을 제외한 뒤 설정값을 1,000단어로 바꾸어 산출해보자 41.9, 41.2로 여전히 미미한 차이였고 두 경우 모두 TT의 다양성이 약간 더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ST 자체가 다양한 어휘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번역자가 ST보다 의식적으로 더 다양한 어휘를 선택해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중의 입장에서는 TT가 CT 못지않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한 격식적인 연설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장 길이를 나타내는 문장 당 평균 단어 수도 TT가 22개, CT는 20개로 TT의 문장들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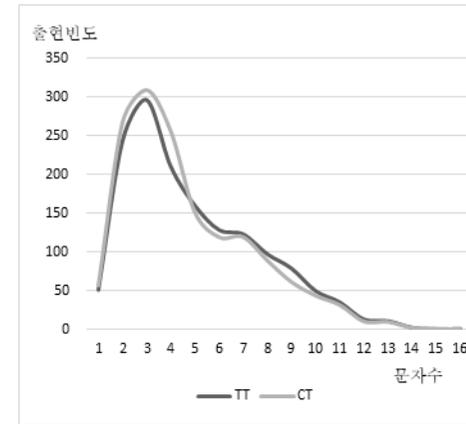
<표 3> 어휘다양성 및 문장길이 비교

	STTR (타입-토큰 비율)	문장당 평균 단어수 (개)
TT (번역연설문) 평균	49.7	22.0
CT (영어연설문) 평균	49.0	20.0

그러나 어휘 난이도 측정에 사용되는 어휘 당 문자 수(알파벳 수)에서는 TT와 CT 간 패턴의 차이가 있었다. 저난이도 어휘로 평가되는 1자~4자 단어의 사용빈도는 모두 CT에서 더 높았지만 5자 이상인 어휘에서는 이 패턴이 역전되어 모두 TT에서 더 높게 나타나 TT가 고난이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림1). 주제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일 것으로 추정되는 기조연설이 개회사나 취임사보다 고난이도 어휘를 더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해봐도 연설 유형 간 규칙성이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대등한 조건의 비교를 위해 정규화한 데이터임을 고려할 때 이는 TT가 CT보다 더 많은 고난이도 어휘와 더 긴 문장들을 사용했음을 의미하며 청중 입장에서는 좀 더 격식적이고 정보처리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딱딱한’ 연설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1 어휘 길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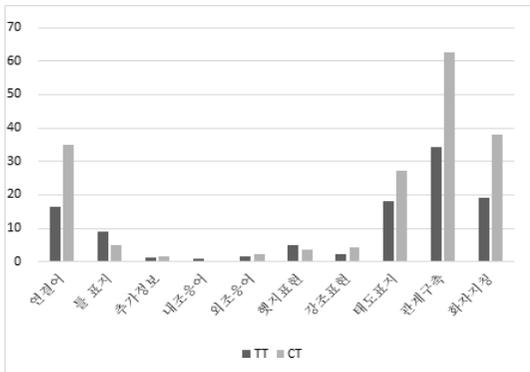


4.2 메타담화 사용 양상

10가지 메타담화표지 중 TT와 CT가 사용빈도에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한 것은 연결어로, CT(평균 35.1개)에서 TT(평균 16.3개)보다 2.2배 많이 사용됐다(그림 2). 단순히 수치만 보면 TT보다 CT쪽이 연설 내용의 논리적 전개나 흐름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텍스트 같지만 실제 연설문의 연결어들을 분석한 결과 빈도보다 그 사용 양상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CT는 대등접속사 and가 9개 연설 중 7개 연설에서 전체 연결어 중 54~71%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나머지 두 연설에서도 각각 36%, 4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반면, TT에서는 and가 3개 연설에서 50%, 1개 연설에서 54% 사용됐을 뿐, 대부분 20%대였고 심지어 절을 잇는 접속사로서는 한 개도 사용되지 않은 연설도 있었다. and, but, so, because를 제외한 기타 연결어의 경우 CT는 64%를 기록한

연설 1개를 제외하고는 10%대가 가장 많은 반면, TT는 9개 중 6개 연설에서 50%~70%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CT는 짧은 절을 and 나 but처럼 쉬운 접속사 위주로 연결해 문장을 늘인 전형적인 구어체를 사용한 반면, TT는 길고 복잡한 낱개의 문장들을 in this regard, furthermore 등 CT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연결어를 사용해 연결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대체로 문장이 길고 복잡한 한국어 연설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말보다 글말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텍스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메타담화표지 비교⁶⁾



그 다음으로 큰 차이를 보인 표지는 화자지칭어⁷⁾와 청자와의 관계구축을 위한 참여유도표지⁸⁾로, CT가 TT보다 각각 2배, 1.8배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we 같은 화자지칭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설자가 연설 내용을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인 당사자로서 자신 혹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생각이나 감정, 입장 등을 드러내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you와 상대를 포함하는 we, 명령문과 let's 같은 참여유도표지가 많았다는 사실은 화자가 청자를 같은 공동체로 아우름으로써 청자를 연설내용에 참여시키고 공감대나 연대감을 형성하는 등 대인관계적 효과를 높인 것으로

6) 가로축은 메타담화표지, 세로축은 정규화 기준 출현빈도(표지 출현 횟수)
7) 입말로 구현될 때의 효과를 논의할 때는 저자-독자 대신 화자-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면 TT에는 공정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의 발언 혹은 글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인관계적 요소가 빠져 있는데 CT와 비교해보면 접근방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ST: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TT: Lastly, efforts should also continue to restore the public trust.

CT1: These actions also include our renewed efforts to uphold our most cherished principles.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CT2: We need to ... and ensure that our efforts are sustainable as well.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위에서 TT는 노력하는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은 ST를 그대로 번역했지만 이런 부분을 we를 주어로 표현하거나 our를 첨가한다면 청중을 아우르는 발언으로 더 효과적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 1차적인 대상은 한국인일 것이므로 TT와 같은 접근방식도 유효하겠지만 청중이 영어사용자일 경우를 상정하는 번역 교육 관점에서는 CT와의 비교가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ST에 충실한 서울시장 신년사 TT에서는 ‘Seoul’s+명사’ 3회를 빼면 Seoul이 주어인 짧지 않은 문장이 연결어도 없이 무려 17회 연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면 수사적 효과가 아닌 지루함을 야기하는 연설이 되기 십상이다. 번역 시 CT처럼 we/our를 적절히 혼용한다면 청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연설내용에 대한 청자의 관련성(relevance)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에서는 기관장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ST: 서울은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존엄한 행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서울은 혁신성장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실현하려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TT: Seoul will not stop its honorable movement towards the elimination of inequality and imbalance. ... Seoul intends to realize an economy for all through innovative growth.

CT: Our mission is to put the powers of City Hall to work to help all of

our neighborhoods thrive and prosper... Our vision means we have to use the tools of government to fight against inequality and to fight for a strong future for all our families.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반대로 TT가 CT보다 더 많이 사용한 메타담화표지는 틀표지어와 내조응표지어, 헷지표현 세 가지였는데, 내조응표지어는 CT가 0개, TT가 0.9개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에서만 우세했다. 먼저 틀 표지어는 TT 8.9개, CT 4.9개로 TT에서 1.8배 많이 사용됐는데 First나 Lastly 같은 열거용 표현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다. CT는 TT처럼 ‘첫째...둘째...’로 열거할 수 있는 내용이어도 틀표지어 없이 also 등의 연결어를 활용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CT가 말로 하는 연설답게 쉬운 연결어를 자주 사용해 청중의 연설 이해를 도왔다면, TT는 애초에 텍스트를 마치 보고서처럼 핵심사항을 열거하는 식으로 구성하고 대신 틀표지어를 적극 활용해 내용을 명시적으로 구획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이는 번역자의 개입 때문이라기보다는 ST 형식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딱딱한 연설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지, 현재 연설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힌트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TT 텍스트 구성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열거를 제외하면 TT의 틀표지어 종류는 오히려 단순했다. CT처럼 now, tonight, today 같은 다양한 틀표지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좀 더 풍성한 연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헷지표현 사용빈도는 TT가 CT보다 1.4배 정도 높았다. 어떤 상황이나 명제에 대해 ‘A는 B다’ 보다는 ‘B인 것 같다’, ‘B라고 생각된다’처럼 자신을 낮추고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ST 특유의 겸양어법이 TT에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I think와 I believe로 발언내용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이에 비해 CT는 could, may/might 등 더 다양한 헷지를 사용했다.

ST: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와 세계에 더 많은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공동의 번영은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TT: I believ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offer greater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and growth to Asia and the world...

CT1: And anybody who heard his comments this morning at the arrival ceremony heard this presence, this vision, and you could feel the energy and the commitment and the passion about it. (존 케리 미 국무장관)

CT2: If necessary, we may need to recalibrate our expectations about what’s important to consumers... As I understand it, the market continues to evolve. (조셉 사이먼스 연방거래위원장)

태도표지어에서는 의무양태표지어인 must나 should의 비중이 TT에서 크게 높았다. TT 평균은 각각 16%, 14%로, must는 전체 태도표지어 중 0~54%, should는 0~40%를 차지한 반면, CT 평균은 각각 6%, 5%에 불과했으며 분포도 0~21%, 0~23% 정도로 낮았다. 의무양태어는 듣기에 따라 체면위험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청자를 포함한 we를 주어로 사용하면 의무를 공유함으로써 대인관계적 요소가 강화되지만, 주어가 we가 아닌 경우 다음 예처럼 연설자가 책임 있는 행위주체가 아닌 방관적 평가자로 비치거나 의도보다 너무 강한 의미로 표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ST: 서울의 내일은 어떤 얼굴의 도시로 나타날까요? 첫째, 서울의 내일은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TT: What exactly should Seoul look like tomorrow? First, Seoul must invest in people[sic].

CT: Let us set aside any preconceived notions and let’s recognize that while we may have disagreements, we can - and must - come together, find common ground and put the needs of our students first. (베시 드보스 미 교육장관)

5. 결론

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구성에서 TT는 CT보다 전반적으로 문장이 길고 어휘 난이도도 높은 문어적 특성을 보였다. 한국어가 고맥락 언어로서 생략이 자주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이 길다는 사실은 대인적 효과를 고려할 때 CT의 스타

일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어휘다양성은 CT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만큼 학습자도 어휘나 국지적 표현 못지않게 설득적 장르에 적합한 메타담화 장치를 익히고 활용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10가지 메타담화표지 사용에서 TT는 틀표지어와 헛지표현, 내조응표지어를 제외한 7가지 메타담화 표지에서 CT보다 사용 빈도가 적었다. 특히 CT는 구어의 특징인 화자지칭어와 참여유도표지어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TT에서도 더 구어다운 연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청자와의 관계구축용 표지어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TT의 틀표지어는 ST의 공문서적 특징이 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화용적 기능을 고려해 단순한 열거뿐 아니라 다른 영어권 표현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헛지표현 또한 ST의 겸양어법을 그대로 반영한 I think, I believe의 과용을 줄이고 다양한 양태어를 활용해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태도표지어에서는 TT의 의무양태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화자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본 연구는 코퍼스가 소규모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코퍼스 규모를 대폭 확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공문서라 할 수 있는 한국어 연설문을 공개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관행 때문인지 TT는 물론 ST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 양국 정부 및 각종 공공기관 사이트와 구글 검색을 동원해도 대등한 비교를 위한 균질성을 확보하고 각종 표지 사용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의 규모가 최선이었다. 또한 번역사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번역사가 바뀔 경우 결과값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다. 기록물 보관 목적일 경우 ST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해 번역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는 연설문 번역 및 ‘영어다운’ 연설문 작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도방법을 찾는 것이 동기이자 출발점이었던 만큼 동일 장르 비교코퍼스를 통한 유사 텍스트와의 메타담화 비교 분석이 교수법으로 활용할 만한 방법인지 일종의 예비연구로서 테스트해본 것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흔히 영어는 텍스트 이해의 책임이 저자에게 있는 언어라고 하지만(Hinds 1987) 수업이나 실제 적용에서 이는 상당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다. 메타담화는 이를 명시적으로 구체화

해준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쉬운 실용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분석 과정에서 이 방식으로 두 언어 간 특정 텍스트 유형의 특징을 좀 더 수월하게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한영번역 수업에 적용할 만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원리를 이해하고 분류한다면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규모는 작더라도 장르별로 비교코퍼스를 만들고 메타담화표지를 중심으로 특징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숙지한 뒤 이를 번역연습에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장르관습(generic convention)을 익히고 그에 적합한 번역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며 실제 수업적용 실험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광운·이영희 (2016) 「한국 신문의 영어 번역에 나타난 번역 보편소의 코퍼스 기반 분석」, 『비교문화연구』 45: 109-43.
- 김철규 (2009) 「코퍼스에 기반한 영국 신문의 논설문과 한국 대학생의 영어 논설문에 사용된 메타담화(metadiscourse) 비교 연구」, 『담화와 인지』 16(3): 65-88.
- 김한식 (1997) 「연설체」 표현의 일-한 통역」, 『통번역학연구』 1: 143-59.
- 김현아 (2011)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공손성 분석」, 『통번역학연구』 15(1): 221-49.
- 김현아 (2012) 「번역 및 비번역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 구축된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텍스트적 메타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2): 115-37.
- 박미정 (2013) 「BA번역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에 대한 일고찰 - 한일/일한 연설문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語教育』 63: 31-47.
- 박세리 (2015) 「통역 교육 텍스트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어휘적 측면에서의 통역 난이도 가중 요인 분석」, 『통번역학연구』 19(1): 81-103.
- 방교영 (2015) 「푸틴 대통령 취임사의 시제분석 - 언어행위로서의 담화와 번역

- 에 관하여」, 『통번역학연구』 19(2): 67-87.
- 신진원 (2015) 「번역을 위한 다시쓰기 대상으로서의 메타담화」, 『번역학연구』 16(2): 63-85.
- 최문선 (2013) 「통역 교육에서 출발텍스트 선정과 난이도 고려에 대한 소고」, 『통역과 번역』 15(2): 249-78.
- 최희경 (2015)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6(2): 317-338.
- Aguilar, Marta (2008) *Metadiscourse in Academic Speech: A Relevance-Theoretic Approach*. Bern: Peter Lang.
- Bateson, Gregory (1973) *Steps to an Ecology of Mind*. San Francisco: Chandler P.
- Biber, Douglas, Conrad, Susan and Reppen, Randi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 P.
- Cheng, Xiaoguang & Steffensen, Margaret (1996) 'Metadiscourse: A Technique for Improving Student Writing',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30(2): 149-81.
- Crismore, Avon (1989). *Talking with Readers: Metadiscourse as Rhetorical Act*. New York: Peter Lang.
- Crismore, Avon, Markkanen, Raija & Steffensen, Margaret (1993) 'Metadiscourse in Persuasive Writing: A Study of Texts Written by American and Finnish University Students', *Written Communication* 10(1): 39-71.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Row.
- Gregory, Michael (1967) 'Aspects of Varieties Differentiation', *Journal of Linguistics* 3: 177-98.
- Halliday, Michael A. K.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New York: Continuum.
- Hinds, John (1987) 'Reader versus writer responsibility: A new typology', in Ulla Connor and Robert B. Kaplan (eds) *Writing across Languages: Analysis of L2 Texts*, Reading, MA: Addison-Wesley, 141-52.
- House, Julian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Gunter Narr.
- Hunston, Susan & Thompson, Georgy (2000) *Evaluation in Text: Authorial Stance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Oxford: Oxford U. P.
- Hyland, Ken (2001) 'Bringing in the Reader: Addresses Features in Academic Articles', *Written Communication* 18(4): 549-74.
- Hyland, Ken (2005) *Metadiscourse*. London/New York: Continuum.
- Hyland, Ken (2018) *Metadiscourse: Exploring Interaction in Writing*. London/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Hyland, Ken & Tse, Polly (2004) 'Metadiscourse in Academic Writing: A Reappraisal', *Applied Linguistics* 25(2): 156-77.
- Ilie, Cornelia (2003) 'Discourse and Metadiscourse in Parliamentary Debates',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2(1): 71-92.
- Kim, Jin-wan (1999) 'Rhetorical Functions of Metadiscourse in EFL Writing', *English Teaching* 54(4): 3-24.
- Kim, Chan-Hee & Suh, Hong-Won (2014) 'Epistemic Rhetorical Stance: Hedges and Boosters in L1 and L2 Students' English Writ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2): 61-93.
- Lim, Hyun-Woo (2009) 'Oral Metadiscourse in English Debates', *Korea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5(3): 337-63.
- Martin, James R. & White, Peter 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 Munday, Jeremy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Fourth Ed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Vande Kopple, William (1985) 'Exploratory Discourse on Metadiscours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36(1): 82-93.
- Vande Kopple, William (2012) 'The Importance of Studying Metadiscourse', *Applied Research in English* 1(2): 37-44.
- Williams, Joseph (1981) *Style: Ten Lessons in Clarity and Grace*. Boston: Scott Foresman.

[Abstract]

Metadiscourse Analysis of Translated Official Speeches

Song, Yonsu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 of official speeches by leaders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agencies poses a unique challenge to translator trainers in that they are intended to be spoken and yet written with a high level of form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ase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translations (TT) of official speeches written and delivered in Korean (ST) and original English speeches (CT) within the framework of metadiscourse. The analysis found that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xtual organization and use of metadiscourse markers, which makes TTs less audience-friendly and less engaging than CTs. The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feasibility of the pedagogical application of metadiscourse analysis in the translation classrooms.

▶ **Keywords:** metadiscourse, official speech, translation pedagogy, corpus analysis

▶ **주제어:** 메타담화, 연설문 번역, 번역교육, 코퍼스 분석

송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번역교육, 제도번역, 미디어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9일